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말씀 : 마태 복음 7:1-12

요절 : 마태 복음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यो 선지자니라”

말씀은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을것 같이 힘든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 85%를 인간관계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족 구성원들사이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한번 깊숙한 관계속으로 들어 갔다가 조직의 싹(?)을 보고 나면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인싸가 아니라 맘 편하게 아싸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백성으로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누리며 살려면 다른 사람과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로서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는 단어는 꼭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철학과 같은 학문을 할 때는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등 비판적 사고로 그의 학문을 완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도 이성적 사고에 기초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심지어 제자들을 비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비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인간 상호간에 끊임없이 비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비판을 잘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발전을 위한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크리노’인데, 이는 ‘재판정에서 내리는 판결’ 혹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려지는 선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로 정죄와 형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비판은 공정하고 너그러운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 결여된 부당하고 잔혹한 비판입니다. 사람이나 모임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사랑을 담아서 하는 비판은 건전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결여된 마음으로 사람이나 모임을 비방하고 헐뜯는 비판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은 사람이나 모임을 넘어뜨리고 죽일수 있어도 결코 생명을 살리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함부로 재판장이 되어 마음대로 형벌을 내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2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그날에 비판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과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옳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사명감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판은 하면 할수록 근육이 발달하듯 비판도 업데이트가 되어 순간적으로 비판하는 생각에 휩싸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비판은 타인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다보면 타인을 불신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고 있으니, 남도 나를 비판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람 말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불러옵니다. 비판은 코로나 바이러스같은 전염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판의 소리가 많으면 모임이 발전할 것 같지만, 죄악된 인간들이 모인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심하고 비판만 하려고 한다면 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잠재력을 끌어 올리고 발전을 위해서는 차라리 칭찬을 하라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부족함을 메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긍정의 관점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힘을 때 듣는 사람도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에 칭찬이 넘치게 하시고 허물과 실수를 감싸주는 모임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우리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음을 풍자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는 일만 달란트 빛진 것에 해당되고, 형제가 우리에게 지은 죄는 백 데나리온 빛진 것에 불과함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

, 한 데나리온은 일꾼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일만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한 노동자가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 하더라도 16만년이 걸립니다. 반면 백 데나리온은 석 달 열출의 품삯이므로 수백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큰 죄는 잘 보지 못하고 남의 약점과 실수는 잘 봅니다. 그리고 죽집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찌 하든지 남의 눈의 티를 빼고자 애를 씁니다. 사실 눈의 티를 빼는 일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눈은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막의 두께는 중심부가 0.5mm, 주변부가 0.6mm로서 매우 얇기 때문에 눈에 티가 들어가 박히면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면서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빼내야 합니다. 함부로 빼다가는 눈에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 보다 더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비판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판을 받는 사람, 비판의 말을 옆에서 듣는 사람, 그리고 비판하는 자기 자신까지 죽인다.”

5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만 보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결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먼저 자기 눈에서 들보부터 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앞에 자신을 살피 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정죄했습니다. 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심으로 먼저 자신을 살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하나씩 물러갔습니다. 비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신앙이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남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반면 신앙이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보를 빼 낼 수 있습니까? 내 허물을 빼낸다고 눈을 뒤집고 억지로 빼 내려 하다가는 오히려 눈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거울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들보가 무엇인지, 내가 빛진 일만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앞에 진실되게 소감을 쓰면서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발견하고 진실되게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이때 내가 억지로 빼지 않아도 내 눈의 들보

가 저절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남 탓하고 시스템 탓하는 세상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따라 우리도 입만 열면 비판만 하지 말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남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힘쓰다 보면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형제의 죄도 받아들이고, 이단도 받아들이고, 인본주의 신앙도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것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내에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되고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순수 복음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것에 짓밟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리키고, 개나 돼지는 탐욕스럽고 영적인 소원이 전혀 없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자들을 가리킵니다. 만일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먹을 것이 아니므로 발로 짓밟고 그런 것을 준 사람에게 달려들어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거룩하고 보배로운 진주와 같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것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만일 순수 복음신앙을 지키지 않고 조금이라도 인본주의나 물질주의와 타협한다면 교회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자들에 의해 사정없이 찢기고 말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비판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느새 비판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형제의 티에 집착하여 이를 빼줄라고 열심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성품으로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고대 거지들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문전박대를 당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구걸하면 결국에는 얻어먹을 것이다!’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9-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해 줍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이빨 빠지라고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줄 마음으로 뱀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1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누구나 뼈아픈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그 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지속적인 기도생활이 필요합니다. 상처나 쓰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발견하기까지 찾고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위해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 본성은 비판하기에 익숙하고 비난받는 자리에 서기는 죽기처럼 싫어합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면, 이해심도 없고 속이 좁은 나의 들보같은 문제로 보기보다도 ‘저 사람이 문제야’ 하며 떠넘기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서는 죄악된 본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상처와 냉소로 가득해서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영혼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실 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품어줄 여유와 사랑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실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곤고한 자를 일대일로 도와 회복하는 성경선생으로 쓰임받게 해 주십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는 이 말씀을 궁전의 벽에 금으로 새겨놓았습니다. 그래서 황금률(golden rule)이라 불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는 평생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따라 평생의 원수를 만들기도 하고 평생의 친구로 삼기도 합니다. 황금률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쓴 것이

입니다. 황금률의 정신은 역지사지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겠구나’, ‘내가 싫어하면 다른 사람도 싫어하겠구나’ 하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받는 것이 싫으면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기에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을 받고 폭력은 당하면 아프다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 하여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이나 즐거움, 슬픔들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기 기분만 중요하고, 자기 먹을 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이런 공감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학교 성적과 경쟁에 내몰리면서 배려나 공감을 배우기보다는 상대방은 정복하고 질시하는 경쟁자로 보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 폭력 영상은 아이들의 정서를 무정하게 만듭니다. 영상 속의 인물은 고통을 모릅니다. 고통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감정이 풍부해지고 공감의 능력이 생깁니다. 메마르고 차가운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감정이입이나 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에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잔인한 일을 행하고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상대방에게 대접하기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내가 채소를 대접받고 싶으니 청년부목자들에게 채소만 대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성숙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단순히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대접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 우화 중에 “소와 사자의 사랑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둘은 결혼하여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 맛있는 풀을 매일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 맛있는 살코기를 매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침내 소와 사자는 다투기 시작했고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며 서로에

말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넌 날 위해서 뭘 해주었니?”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와 사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베풀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친절이 아닙니다. 자기감정과 자기 생각만 앞세웠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숨겨 있는 다른 사람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황금률의 말씀을 계산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면 저 사람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라는 기대에서입니다. 우리가 베풀 만큼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베풀 친절이 되돌아오지 않을 때 사람은 화가 나게 됩니다. 내가 선물을 여러 번 사주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을 때 그 사람이 괴씸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차라리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속 편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대접받기 위해 하지 않았을지라도 계속해서 대접만 하다가 힘들어 질수도 있습니다. 한 사모님은 아이들을 매일같이 대접했는데, 어버이 날이 되자 이날 하루만큼은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할 때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섬겨주기만 해야 한다면 누구라도 정말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황금률은 Give and Take식의 윤리가 아닙니다. 황금률의 목적은 돌아오는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그 초점이 ‘남을 대접하라’는 데 있지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든지 전혀 반응이 없던지 상관없이 나는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자기 행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친절에 대한 대가에서가 아니라 친절한 행위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값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이아몬드 룰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우리 인생들을 섬기시기 위해 인간의 모양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몸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수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 예수님의 대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대접을 받은 자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황금률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고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황금률의 정신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의 제자 된 우리가 주님처럼 황금률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을 대접해야 할까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매번 밤잠도 줄여가며 쓴 메시지인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이런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목자님들에게 “목자님,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맡아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최선을 다해 역사를 섬기고 계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을 듣고 싶으면 칭찬을 해 주어야 합니다. 조은혜목자님 결혼식때, 김느헤미야 목자님은 신랑 신부에게 하루에 몇개씩 칭찬으로 대접해 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실수하여 고민하는 사람에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실수 할 수 있는 거지요.’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말이 좀 거칠고 딱딱하여 ‘말을 좀 부드럽게 해 주면 안될까’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먼저 부드럽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되었던 나를 대접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어떤 사람도 대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황금률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황금률은 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입니다. 황금률은 감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입니다.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큰 힘은 비판이나 쓴 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이 부족하여 은혜가 딸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대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황금률을 실천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비판과 정죄가 사라지고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 작은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신 황금률을 가슴에 새기고 비범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